

## 외국 아동·청소년문학 한국어 출판번역에서의 교육적 기대규범\*

강 경 이  
(이화여대)

### 1. 서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작품은 성장기에 있는 미성년 독자군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다른 문학 장르와는 차별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심미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가 겸비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후자의 비중이 더 커지기도 한다. 또한 ‘생산자와 최종 독자 사이에 책을 구매, 권장, 지도, 제재하거나 소리내어 읽어주는 중재자로서의 어른이 존재한다’(박소영 2014: 43)는 점에서도 특수하다. 따라서 작가는 물론 도서 제작자, 비평가, 학부모 등 해당 사회 기성세대들의 교육관과 가치관이 작품에 오롯이 투영되는 경우가 적지

---

\* 본고는 필자의 2015년 박사논문 「중국어권 아동 청소년소설 한국어 출판번역에서의 재맥락화 양상 - ‘교육적 기대규범’ 측면에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않다.

게다가 특정 작품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 타국의 독자들과 마주하는 상황이라면, 성장기의 동질한 삶과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면도 있겠지만 주제선정 방식이나 표현 수위 면에서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분명 생긴다. 이는 각 나라나 문화권마다 아동 청소년문학<sup>1)</sup>에 대해 추구하는 지향점이나 교육성과 작품성에 대한 기대적도, 아동 청소년문학을 둘러싼 거시적 맥락들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문학 번역 시에는 자국화전략이 비교적 쉽게 용인되며, 학계에서도 다시쓰기 조치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인다 (Shavit 2006; Jan Van Coillie 2008; Frank 2007; 고봉만 2011; 이인규 2012). 특히 “아동문학 번역은 그 시기 성인들이 가진 아동이미지가 반영되는 순수하지 않은 행위(Oittinen 2006)”라는 주장이나 “아동문학에서는 결텍스트나 텍스트 내부의 내러티브 안에 새겨지는 번역가의 목소리가 불가피하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O’Sullivan 2003)”는 주장들이 아동 청소년문학 번역의 특성을 단적으로 대변해준다.

따라서 외국의 아동 청소년문학이 국내로 번역, 소개되는 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외적 요소들과 아동 청소년문학과 관련된 사회적 맥락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며, 향후 텍스트 분석과의 연계성 모색이나 보다 나은 번역 전략 제안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작품성과 교육성 양면을 담보해야 하는 아동 청소년문학 번역에 있어서 특히 교육적 측면에 주목하기로 한다. 또한 번역행위가 단독적으로 이

1) 본고에서 아동 청소년문학은 ‘성인문학’과 대비되는 하나의 통합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대상연령에 따른 단계성, 곧 내부편차를 지우지 않아야 한다”는 원종찬(2007: 66)의 지적에도 공감하는 바이나 본 연구의 취지 상 성년 대상과 미성년 대상이라는 거시적 경계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성장 단계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아동과 청소년기가 여전히 어른의 보호와 제약 속에 있다는 점’, ‘아동과 청소년 모두 제도권 교육시스템 속에 성장기를 보내는 미성년 그룹으로서 독서활동이 학교와 입시제도, 부모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 ‘두 장르 모두 궁극적으로 성인 단계 이전의 독자들에게 간접체험 제공 및 문제 해결방향 제시, 바른 가치관과 태도 주입을 목표로 한다는 점’ 등 두 문학 장르의 공통분모에 더욱 주목하는 바, 유사 장르로 함께 엮어 논하고자 한다.

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사회 차원에서 암묵적, 명시적으로 형성된 교육적 측면의 기대규범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번역행위에 거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의 사회 문화 맥락, 출판 맥락 내에 형성된 교육적 기대규범의 양상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아동 청소년문학에 적용되는 ‘교육적 기대규범’은 체스터만(Chesterman)의 ‘기대규범’ 개념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또한 도서심의제도, 아동 청소년문학을 둘러싼 전문가 공적 담론과 권장도서 선정기준을 분석하여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교육적 기대규범을 유형화해 볼 것이다. 더불어 출판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교육적 기대규범의 실제 적용 여부와 타당성을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 2. 교육적 기대규범

체스터만의 ‘기대규범(expectancy norm)’은 ‘도착어 문화권에서 번역물을 읽는 독자들에 의해 형성되는 규범’으로서 번역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번역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Chesterman 1997: 64). 이러한 규범은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지배적인 번역전통, 유사한 도착어 텍스트 장르에서 준수되어지는 담화 관습(discourse convention), 도착어 문화권 내의 보편적인 장면(scenes)과 틀(frames), 경제, 이데올로기적인 요인, 출발어와 도착어 문화 간 또는 도착어 문화권 내부의 권력관계 등 다양하고 중층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받는다(1997: 65).

외국의 아동 청소년문학을 국내 사회의 틀과 교육시스템, 독자니즈에 부합하여 사회 속으로 적절히 편승할 수 있게 번역하려면 우선 한국사회의 아동, 청소년문학 장르에 대한 기대규범을 인식하고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기대규범의 개념을 원용하여 본고에서는 아동 청소년문학의 교육적 측면에 대한 한국 사회의 기대규범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교육적 기대규범’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교육적 기대규범’에 대해 ‘아동 청소년 문학이 교육적<sup>2)</sup>으로 어떠한 가치와 기능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독자 및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요구’라고 정의한다.

특히 ‘교육적 기대규범’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사회가 아동 청소년문학을 대할 때 ‘교육적 잣대’를 우선시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까지도 국내에서는 기성세대들의 교육관이나 교육여건 및 제도적 이유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 문학에 대한 독서행위가 단순한 작품 감상으로 여겨지기보다 교육이라는 목적 의식이 뚜렷한 행위로 간주된다.

아동 청소년문학의 국내 번역, 출판과정에서 ‘교육적 기대규범’ 형성에 크고 작은 영향을 행사하는 주체들은 다양하다. 여기에는 국가적 이데올로기나 출판물 심의, 검열과 관련한 제도적 틀, 텍스트를 선정, 기획, 편집하는 출판사, 텍스트를 번역하는 번역사, 텍스트 유통의 근거지인 서점, 텍스트 구매, 홍보, 유포에 관여하는 독자, 평론가, 전문가, 교육자, 학부모, 교육기관, 도서 추천기관, 도서관 사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본고는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심의제도’, ‘전문가들의 지배담론’, ‘권장도서 선정기관’, ‘출판사’ 네 가지에 주목하여 국내의 ‘교육적 기대규범’을 가시적으로 도출, 유형화하고자 한다. 도서심의제도는 국내에서 수용 불가능한 요소를 걸러내고 아동 청소년 대상 도서가 지켜야 하는 수위를 거시적으로 정해주는 일차적 관문이라는 점에서, 전문가 지배담론은 아동 청소년문학의 역할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보편적 인식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권장도서 선정기관의 도서 선정기준은 기성세대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에 적합한 양서를 걸러내는 포괄적 척도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고찰의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 책을 기획, 제작하는 출판사의 경우, 번역서 출간 과정에서 주된 의사 결정권을 쥐고 행사하므로 교육적 기대규범의 현실화 주체로서 반드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 여기서 ‘교육적’이라는 표현은 언어 능력 향상 및 문학적 태도 함양, 다양한 지식의 습득, 인간으로서의 가치교육, 문화의 전수와 문화의 형성, 사회화에 이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간주한다(강경이 2015).

### 3. 한국 출판 시장 내 아동·청소년문학에 대한 교육적 기대규범

#### 3.1. 도서심의제도

도착어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틀과 심의제도는 외부의 출판물을 내부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관문이다. 그 문턱의 높이와 제재 강도는 해당 시대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아직 교육을 통해 경험과 지식을 계속 채워나가야 하는 성장기의 아동, 청소년들을 독자로 상정하는 텍스트에 한해서만큼은 성인대상 텍스트에 비해 더 적극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본고에서 지칭하는 ‘심의’란 소위 ‘검열’과 대등하게 사용되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에 근거한다. 피에르 브루디외(1995)는 ‘검열이란 표현에의 접근 통로와 표현 형태를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표현을 지배하는 장(field)의 구조 자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만수(2012: 20)는 검열에 대해 “언론, 출판, 예술 등 분야의 메시지가 그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권력이 이를 열람한 뒤 전달을 허용할 것인가 결정짓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도착어 문화권의 심의, 검열기제가 존재하는 한, 외국의 출판물들은 기형성된 틀에 들어맞게 걸러지거나 원형에 대한 재가공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면, 국내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적으로 퍼져 있다. 이봉범(2005: 77-78)에 따르면 해방 이래 한국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 기제와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 기제가 상호 보완을 이루며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언론출판, 문학예술, 학술의 모든 영역에서 검열의 핵심기제로 작동되어 왔다. 이는 아동·청소년문학 교육과 도서보급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론 냉전이 종식된 지금은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의 주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적 상황에 처해 있는 한 뿌리 깊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내밀한 개입은 공공연한 불문율처럼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반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국내에는 이를 지탱하며 출판 행위에 관여하는 법적, 제도적 기제들이 존재한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21

조 4항에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으며,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시됨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출판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성폭속과 명예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음란한 문서 및 도화를 반포, 판매, 제조, 수입, 수출하거나 출판물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과거 반공 이데올로기를 고착화하는데 핵심역할을 했던 「국가보안법」 제7조도 출판물의 제작과 유포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현행법 규정 중 하나로서 출판물의 이적성 여부를 규정하고 처벌을 정당화하는데 활용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총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상위 법률에 속하는 것으로서 출판행위나 도서심의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언급 선에서 그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과 안전 보장, 자유민주적 질서 유지,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수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개입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하고 있다.

이들 규정 내용이 보다 큰 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면 출판 및 간행물에 관해 세부적으로 다룬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심의 기준 등은 그러한 원칙들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출판 실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부연적인 지침들을 명시한다. 그 중 본 연구의 관심사인 아동 청소년도서 출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제도적 규정으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내 관계 규정,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3장 청소년 유해간행물 심의기준)이 해당된다.

우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19조 1항에 따르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유해간행물로 결정해야 할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둘째,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셋째,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

성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등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의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서는 청소년 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이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6.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도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해간행물 심의기준은 반국가성, 반도덕성, 반사회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청소년 대상 유해간행매체와 관련해서는 선정성, 자극성, 잔인성, 폭력성, 선동성, 반윤리성, 반사회성, 정신적/신체적 유해성 여부로 심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윤곽으로 보자면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과 질서 보장’이라는 국가적 측면과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윤리도덕과 가치 체계 유지’라는 도덕적 측면으로 양분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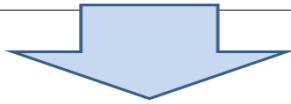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심의기준에서도 상술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근간으로 유해간행물과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구분하여 각각 내용적 측면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유해간행물(제2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반국가성,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해치는 음란성,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성의 정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편, 청소년 유해간행물(제3장)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성적 충동 또는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선정성’,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폭력, 잔인성’,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범죄와 유해 약물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는 ‘성범죄와 유해약물’, ‘청소년의 건전한 윤리관 저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윤리, 반사회성’,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청소년 유해 행위’ 등 여섯 가지를 심의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 즉 헌법, 형법, 국가보안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청

소년보호법,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의 관련 조항들을 바탕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아동 청소년 출판물 관련 심의시스템을 종합해보면 아래 그림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1 국내 법적, 제도적 검열 기제의 주요 규제 내용과 목적

<b>헌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 규제</li> <li>▪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li> <li>▪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위배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제한</li> </ul>
<b>형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란성에 대한 규제</li> <li>▪타인 비방 및 명예 훼손에 대한 규제</li> </ul>
<b>국가보안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활동(이적행위)에 대한 통조, 선동 행위 규제</li> </ul>
<b>출판문화산업진흥법</b> <b>청소년보호법</b> <b>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기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체제 전복 활동 고무 선동, 국가 안전이나 공공질서 위배 행위 규제</li> <li>▪자극성, 음란성, 선정성 제재</li> <li>▪폭력적, 비윤리적,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 제재</li> </ul>



1. 국가, 사회적 질서 유지, 정체성 이입
2. 올바른 성문화, 성윤리 의식 확립
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 인격과 시민의식 함양

즉, 아동 청소년 출판물을 포함한 국내 유통 출판물 전반에 적용되는 법적, 제도적 심의기제는 주로 ‘국가의 안전 보장 및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 ‘국내의 보편적 성도덕 관념’, ‘사회의 일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적 소양’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이러한 규제 행위 이면에는 결국 첫째, ‘국가, 사회적 질서 유지 및 정체성 이입’, 둘째, ‘올바른 성문화, 성윤리 의식 확립’, 셋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 인격과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세 가지 궁극적 목적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둔



심의 검열제도들은 국내에서의 ‘교육적 기대구범’ 형성과정에서 거시적인 대전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이러한 제도적 틀이 존재하는 한, 정상적인 절차로 출판된 제도권 내 아동 청소년 대상 도서들은 내용적 측면의 허용범위를 최대한 지키고자 할 것이다.

### 3.2. 전문가 담론

다음은 아동 청소년문학의 교육적 효용 및 기능에 대한 국내 아동문학 전문가, 학자들의 담론들을 표로 정리해 본 것이다. 해당 담론들은 아동 청소년문학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가 반영되도록 아동, 청소년문학 분야 개론서나 관련 논문에서 발췌되었다.

〈표 1〉 국내 아동·청소년문학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전문가들의 담론

강문희 외 (2008)	1)정서발달(즐거움 제공, 감성지능 발달) 2)언어발달(어휘력 발달, 이야기 감각 발달, 글쓰기 모델, 모국어에 대한 이해 촉진) 3)사회, 도덕적 발달(다양한 지식 습득, 타인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 발달, 도덕성 발달) 4)사고력 발달(상상력과 창의력 발달)
박미경 (1998)	1)정서적 기능(미적 정서의 함양, 상상 세계의 구현) 2)지적 기능(사고력 신장, 창의력 계발) 3)언어교육적 기능(어휘력 신장, 수사능력 배양) 4)윤리적 기능(개인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국가적 측면)
선주원 (2008)	1)다양한 정서 경험(정서 발달) 2)어휘력 신장, 이야기 감각의 발달, 세련된 모국어 학습(언어 발달) 3)사회적 존재로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가치에 대해 성찰하고 내면화(윤리성 발달) 4)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간접 체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상상력 발달)
성경수 (2010)	1)작품 속의 인물을 모델 삼아 자아에 대한 탐구 2)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의식과 삶에 대한 긍정성 이입 3)타자 혹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지평 제공 4)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한 성찰의 기회 제공, 주변 사람들과 세계에 대한 이해 확장과 자아 성장 도모 5)이성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에 대한 해답 제시
신헌재 외 (2009)	1)언어능력 발달 2)인지능력 발달 3)정서 발달 4)사회성,도덕성 발달

이성은 (2003)	1)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능력을 통합적으로 신장 2)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 배양 3)삶에 대한 여러 가치들을 체험하고 가치판단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게 도움
허미은 (2002)	1)언어능력의 발달, 독해력 신장(언어기능 교육으로서의 가치) 2)새로운 지식과 정보 제공, 창의적 사고력 신장으로 인한 지적 발달 3)자아 정체감 형성과 도덕적 가치관 습득, 공동체 의식 배양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4)상상력과 풍부한 정서, 인간애,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 제공
황기순 (2000)	1)감정순화에 유용(정서적 기능) 2)상상력 계발과 창의력 신장 3)읽기 기술 습득, 지적발달 4)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과 가치관 습득

상기 내용의 공통 항목들을 추려서 요약해보면 전문가, 평론가 등 기성세대들이 아동 청소년문학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크게 ‘언어능력 발달’, ‘인지능력<sup>3)</sup> 제고’, ‘정서지능<sup>4)</sup> 함양’, ‘사회성<sup>5)</sup> 발달’, ‘도덕성<sup>6)</sup> 제고’ 다섯

- 3) 교육심리학용어사전(2000)에 따르면 인지능력은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관한 능력’을 말하며, 지식, 이해력, 사고력, 문제해결력, 비판력 및 창의력과 같은 정신능력이 포함된다.
- 4) 교육심리학용어사전(2000)에서 밝히는 정서지능이란 ‘자신의 감정들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을 점검하는 능력, 그 감정들을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이끄는 능력’을 말한다.
- 5) 사회성(sociability)은 ‘사회의 적응성과 대인관계의 원만성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다. 에릭슨(Erikson)이 제시한 인간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미(identity vs. role confusion)’ 단계로, 사회와 문화에서 요구하는 가치에 대한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기다. 이 시기에 사회성이 잘 형성되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역할 모델을 확보할 수 있으면 자아정체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업선택이나 성역할, 가치관 확립에 있어서 심한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심리학용어사전 2014 인용).
- 6) ‘도덕성’에 대해서 교육심리학용어사전(2000)에서는 ‘정직성, 성실성, 타인 존경심 등과 같은 덕목이 내면화하여 성격의 일부가 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콜버그(Kohlberg)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 정도를 3수준 6단계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 아동 및 청소년기는 ‘인습적 수준’의 3단계, 즉 ‘대인관계의 조화를 지향하는 단계’에 속한다. 이때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덕적 행동을 하는 시기로, 부모, 교사, 또래집단의 영향이 매우 크게 미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도덕적 기준과 판단력 배양, 건전한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 도덕적 행동의 이행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심리학용어사전 2014 인용).

가지 범주로 수렴된다.

### 3.3. 권장도서 기준

이번에는 국내 아동 청소년문학 출판방향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기대치와 지향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로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권장도서’ 목록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권장도서는 말 그대로 기관이나 단체에서 특정 기준을 가지고 아동,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이라고 정하여 읽기를 장려하는 책을 말한다(김시내 외 2003; 이연옥 2006; 이주희 2012). 달리 말하면 한창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의 지적 정신적 성장에 유익하고 각종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을 기성세대들이 선별하여 모아놓은 것이다.

이러한 권장도서 선정목록은 장단점이 있는데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선 독자들부터가 권장도서에 의존하여 책을 고르는 경향이 강한데다 교육현장에서도 권장도서 목록들이 종종 필독서로 연결되거나 아동, 청소년들의 독서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현실이다(김은하 2005; 성초림 2013). 또한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사서들도 도서를 고르기 위해 이러한 목록을 참고하며(김수경 1995; 강향옥 2001; 이연옥 2006), 도서를 유통시키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작품의 수상 여부나 추천 목록 선정 여부를 마케팅 전면에 부각시키고자 한다(곽춘옥 2011).

이에 따라 본고는 국내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권장도서를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출판 및 독서 관련 기관/단체 중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고지하고 있는 다음 8개 기관을 살펴보았다. 이들 8개 기관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도서 마케팅 문구에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들로 어느 정도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책자 배포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권장도서를 선정 발표하면서 명확한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구]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좋은 책 선정사업 - ‘청소년 추천도서’

- ▶ 대한출판문화협회: 청소년교양도서 [구] ‘올해의 청소년도서’]
- ▶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 ‘책따세에서 권하는 책 추천목록’
- ▶ 어린이도서연구회: ‘어린이 청소년책 목록’
- ▶ 한우리 독서문화운동본부: ‘한우리 권장도서’
- ▶ 전국독서새물결모임: ‘추천도서’
- ▶ 행복한아침독서: ‘아침독서추천도서’

상기 8개 기관의 아동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기준들을 검토한 후 그 중 ‘교육적 측면’과 직결되는 항목들을 추출해 유사한 항목들끼리 포괄적인 유목화를 시도한 결과, 크게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양분할 수 있었으며 교육적 요소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내용적 측면은 세 가지, 형식적 측면은 두 가지 총 다섯 가지로 분류되었다.

먼저 아동 청소년도서의 내용 측면에 관한 교육적 기대사항으로는 ‘인지적(cognitive) 영역의 확대’, ‘정의적(affective) 영역의 함양’, ‘국가, 사회적 정체성 이입’ 세 가지로 귀납되었다. 즉, 주변 지식 제공과 지적 호기심 충족, 사고력 확장과 관련된 항목들을 아울러서 ‘인지적 영역의 확대’로, 긍정적인 정서 및 가치관 체득, 바람직한 인격 형성, 건전한 도덕관 확립과 관련된 항목들을 통합하여 ‘정의적 영역의 함양’으로, 국가가 추구하는 사상 정신의 공유, 민족적 자긍심 고취,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모아 ‘국가, 사회적 정체성 이입’으로 유형화하였다.

다음으로 형식 측면에서의 교육적 기대사항으로는 ‘가독성 추구’와 ‘예술적 심미성 고려’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했다. 간결한 문체, 이해가 용이한 표현 구사, 난이도 조절과 관련된 항목들을 통합하여 ‘가독성 추구’, 문학으로서의 예술성, 형식미, 표현의 독창성 추구하고 관련된 항목들을 모아 ‘예술적 심미성 고려’라는 상위범주 유형을 각각 부여했다. 이를 도표화하여 제시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아동·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기준의 교육적 기대사항

분류	선정기준 중 교육적 요소와 관련된 세부기준	아동·청소년 도서에 대한 교육적 기대사항
내용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지적, 지적 능력, 사고능력 향상</li> <li>• 지식과 정보 확충, 실제 생활에 유용</li> <li>• 인간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폭 확대</li> <li>• 다양한 문화 접촉, 이해</li> <li>• 탐구심, 지적 호기심 고취</li> <li>• 자아실현, 소질 계발에 도움</li> </ul>	인지적 (cognitive) 영역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 함양, 인성 개발</li> <li>• 건전한 인격과 윤리관, 도덕관 확립</li> <li>• 바람직한 삶의 가치와 의미 체득</li> <li>• 꿈과 희망의 메시지</li> <li>• 사회윤리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도서 제외/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도서 제외</li> </ul>	정의적 (affective) 영역의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정신과의 일치</li> <li>• 우리문화의 우수성, 조국과 민족의 소중함 터득</li> <li>• 건전한 역사관 확립</li> <li>• 사회화 실현, 사회와의 소통</li> <li>•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형성</li> </ul>	국가, 법사회적 정체성 이입
형식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자체의 난이도 조절</li> <li>• 아동,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 구사</li> <li>• 우리말 어법 준수</li> <li>• 간결한 표현</li> <li>• 보통 수준의 학생들이 독서의 즐거움 향유</li> <li>• 번역서의 경우 의미의 정확한 전달, 매끄러운 표현</li> </ul>	가독성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성, 문예성 강조</li> <li>• 형식미, 표현의 독창성</li> </ul>	예술적 심미성 고려

### 3.4. 아동·청소년문학에 대한 교육적 기대규범 도출

이상의 세 가지 항목을 통해 확인된 기성세대들의 요구와 기대들을 귀납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공유하는 아동·청소년문학의 ‘교육적 기대규범’ 양상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다.

먼저 국내에 존재하는 도서의 심의는 크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반공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기제와 출판물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제가 병존함이 확인되었는데, 앞서 이러한 여과, 선별 작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 사회적 질서 유지 및 정체성 이입’, ‘올바른 성문화, 성윤리 의식 확립’,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 인격과 시민의식 함양’ 효과를 얻기 위한 데 있다고 정리한 바

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국가, 사회적 정체성을 이입’하고, 그들이 ‘정의적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문가 담론 검토 결과 아동 청소년문학의 교육적 기능에 대해 크게 ‘언어능력 발달’, ‘인지능력 제고’, ‘정서지능 함양’, ‘사회성 발달’, ‘도덕성 향상’이라는 다섯 가지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선정기준을 통해 본 기성세대의 교육적 기대사항으로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인지적 영역 확대’, ‘정의적 영역의 함양’, ‘국가, 범사회적 정체성 이입’, 형식적 측면에서의 ‘가독성 추구’, ‘예술적 심미성 고려’ 다섯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상기 세 가지 관점에서 도출된 사항들이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도서심의제도의 목적이 아동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 선정기준의 교육적 기대사항 일부분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문학의 교육적 기능들 또한 권장도서 선정기준의 교육적 기대사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표 3>).

<표 3> 도서심의제도 목적과 권장도서 선정 기준의 교육적 기대사항, 아동·청소년문학 교육적 기능 간 상관관계 비교

도서심의제도의 목적	아동·청소년도서에 대한 교육적 기대사항		각 교육적 기대사항과 연계되는 아동·청소년문학의 교육적 기능
국가, 사회적 질서 유지 및 정체성 이입	인지적 영역의 확대	내용	1. 언어능력 발달 2. 인지능력 제고
올바른 성문화, 성윤리 의식 확립	정의적 영역의 함양		3. 정서지능 함양 5. 도덕성 향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인 인격과 시민의식 함양	국가, 범사회적 정체성 이입		4. 사회성 발달
	가독성 추구	형식	1. 언어능력 발달 3. 정서지능 함양
	예술적 심미성 고려		1. 언어능력 발달 3. 정서지능 함양

이를 종합해 보건대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작동되는 아동 청소년문학에 대한 교육적 기대규범'은 권장도서 선정기준의 분석을 통해 도출했던 '교육적 기대사항'의 기본 틀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도서심의제도가 존재하는 세 가지 목적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유된 아동 청소년문학의 다섯 가지 교육적 기능들도 결국은 권장도서 선정 기관들이 기준으로 제시한 아동 청소년도서의 교육적 기대사항들에서 본질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본고에서는 '아동 청소년문학에 대한 한국 기성세대들의 교육적 기대규범'을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표 4〉 아동·청소년문학에 대한 한국 기성세대들의 교육적 기대규범

분류	교육적 기대규범
내용적 측면	국가적, 범사회적 정체성 이입
	인지적 영역의 확대
	정의적 영역의 함양
형식적 측면	가독성 추구
	예술적 심미성 고려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부여하자면 '국가적, 범사회적 정체성 이입'이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공공질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견지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적 영역의 확대'는 '언어능력, 인지능력, 사고능력을 향상하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키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것'으로, '정의적 영역의 함양'은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도덕관, 윤리관을 확립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요컨대 이 세 가지 항목은 각각 '공동체 의식 및 정체성' 측면, '언어/인지, 사고력' 측면, '가치관 및 도덕관' 측면에서의 교육적 기대를 담고 있다.

다음으로 '가독성 추구'는 '정확한 어휘와 문법, 간결하고 이해가 용이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예술적 심미성 고려'란 '문학으로서의 예술

성을 간직하고 형식이나 표현의 독창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자 한다. 이러한 형식적 측면에서의 기대규범은 사실 일반문학 장르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교육적 의미를 중시하는 아동 청소년문학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가독성 추구'와 '예술적 심미성 고려'가 전제되어야만 아동 청소년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 흡수하여 문학 감상 능력, 작문 및 창작 능력 배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로 꾸준한 독서습관 형성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4. 아동·청소년문학 번역출판에서의 교육적 기대규범 적용 - 아동·청소년문학 전문출판사 관행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앞서 도출된 아동 청소년문학에 대한 국내 사회의 교육적 기대 규범들이 외국도서의 번역, 출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되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련 출판사와의 인터뷰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인터뷰는 <표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 청소년문학 전문 출판사 및 에이전시에 종사하는 1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4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되었다. 인터뷰 방식은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여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반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채택하였고, 면대면 혹은 서면 형태로 실시했다.

<표 5> 심층인터뷰 대상

구분	소속	응답자	직책/담당업무	성별	인터뷰방식
출판사	A	1	대표, 아동문학작가	여	면대면
출판사	B	2	아동문학팀 대리	여	면대면
출판사	C	3	청소년팀 과장	여	면대면
		4	아동문학팀 과장	여	
출판사	D	5	대표	남	면대면
출판사	E	6	아동문학팀 팀장	남	서면



출판사	F	7 8	부장, 시인 편집/저작권 담당	남 여	면대면 서면
출판사	G	9	어린이출판부 부장	여	서면
출판사	H	10	대표	여	서면
출판사	I	11	편집자	여	서면
에이전시	J	12	기획실장 (전 출판사 편집장)	여	면대면

질문 내용은 크게 (1)아동 청소년도서 출판과 외부환경 (2)아동 청소년도서 출간에서의 고려사항 (3)아동 청소년도서 출간에서의 교육적 측면 고려 여부 (4)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재맥락화 전략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4.1. 아동·청소년도서 출판과 외부환경

첫 번째 ‘아동 청소년도서 출판과 외부환경’은 아동, 청소년 대상 도서를 기획 출간할 시 출판 및 교육 관련 제도나 권장도서 선정 기준, 베스트셀러 경향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이다.

조사 결과, 아동 청소년문학 출판사들의 도서 출간 결정에 있어서 외부환경, 특히 제도적 규제나 입시 및 교육 방침, 권장도서 선정기관의 기준, 베스트셀러 경향, 독자들의 독서문화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표 6〉 (1) 아동·청소년도서 출판과 외부 환경에 관한 인터뷰 내용

(1)항목 관련 주요 내용 발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나 언론의 권장도서 선정기준도 영향을 많이 끼치죠[...] 베스트셀러 경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랑스 책을 한국에 소개하거나 한국 책을 프랑스에 소개하겠다고 할 경우 해당 책이 뭔가의 타이밍이라든지 목적이 있어서 소개하는 책이 아니고서야 베스트셀러 경향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J사 13)</li> <li>▪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부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죠[...] 이중독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li> </ul>

부모들이 선택을 잘 하지 않고, 간행물윤리위원회나 어린이도서연구회 같은 기관의 추천도서 목록에서도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원고들은 지어하게 돼요 [...] 어느 정도는 주변상황, 독자취향, 학부모, 교사, 사서들의 의견을 잠재적으로 의식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B사 2)

- “아동도서는 어른이 이끌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들에게도 선정단체들의 추천이 아주 중요하고요[...] 사실 기관에서 선정된 도서의 힘도 예전보다 많이 약해졌다고 봐요. 하지만 그거라도 부여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선정이 되면 기관 차원에서 책을 구매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기관 추천도서에 선정되기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C사 4)
- “입시, 눈술제도에 맞춰서 책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독자들도 입시와 연관되거나 교과와 연계된 책, 학교에서 추천하는 책 위주로 찾거든요. 기관 추천도서로 선정되면 판매 결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적극 어필할 수밖에 없어요.” (F사 7)
- “교과연계 성격이 강한 기획서의 경우 특히 교육제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도서목록을 제작하거나 책을 홍보할 때 교과서 대단원 및 각 단원 학습목표를 책 소개에 노출하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G사 9)

인터뷰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 청소년문학의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권장도서에 선정되면 한번 검증된 작품이라는 신뢰성이 더해져 독자들이 믿고 선택하게 되며, 도서관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으로의 납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결국 판매량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선정 목록 기준과 선정위원들의 취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출판관계자들은 실제 아동 청소년문학 도서를 직접 구매, 추천, 사용하는 주요 독자층인 일선 교사나 사서,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국내 입시제도나 교육제도의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수긍하고 있다.

물론 일부 출판사는 내부 출간 원칙에 따라 소신대로 작품을 고른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전 시장조사 단계나 도서 완성 이후 출간시기 결정, 본격적인 홍보 단계에서는 권장도서 목록이나 최근 베스트셀러 경향, 교과 내용 등 외부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하였다.

#### 4.2. 아동·청소년도서 출간에서의 고려사항

두 번째 ‘아동 청소년도서 출간에서의 고려사항’은 출판사들이 국내 및 외국 아동 청소년문학 선정 기획 시 출판사 내부적으로 우선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다.

아동 청소년문학 출판사들은 국내 출판시장의 외적인 환경을 주시하면서도 각자 견지하는 도서 선별 기준을 내부적으로 공유하며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으려 할 것이다. 출판사마다 작품을 선별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겠지만 인터뷰한 출판사들의 답변에 공통분모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는 ‘문학으로서의 작품성과 주제’였다. 대체로 문학성을 기본적으로 담보하고 있으면서 성장기 독자들의 긍정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담아내는 작품들이 선호되고 있었다.

〈표 7〉 (2) 아동·청소년문학도서 출간에서의 고려사항에 관한 인터뷰 내용

(2)항목 관련 주요 내용 발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문학에 있어서는 ‘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이들보다 학부모 소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수상작에 대한 고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J사 13)</li> <li>▪ “책을 선정, 기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작품성입니다. 문학작품을 주로 하다 보니 작품성과 독자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를 담고 있는 원고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작가의 인지도와 판매는 작품 자체의 가치 다음으로 고려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번역 출간할 때 ‘수상작’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일차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인식 때문인지 표지에 한 줄이라도 더 붙어서 나가면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환경과 아이들의 정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살펴야 해요.” (B사 2)</li> <li>▪ “문학성도 중요하지만 판매성이 보장되는 책들을 고르게 됩니다[...] 문화적인 이질감이 심하거나 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는 선정 자체를 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변형으로 가능한 작품을 우선 선정하게 되죠.” (C사 4)</li> <li>▪ “작품 선정에는 아무래도 작가 인지도가 가장 우선시되고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상작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슈화되고 있는 책,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는 책들을 고르려고 합니다. 외국도서라면 한국 아동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li> </ul>

나, 읽혀도 되냐를 먼저 고민하게 되죠.” (F사 7) / “기획(계약)단계에서는 작품성과 현실적으로 BEP를 웃도는 판매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성이 있는지 함께 고려하여 인세 계약을 맺습니다. 작품성의 경우는 원서의 수상내역, 언론의 평가 등을 고려하고 상품성의 경우는 영화, 애니메이션 판권 판매, 저자의 인지도 등을 살핍니다.” (F사 8)

- “문학의 경우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작품성입니다[...] 서사구조 완성도, 문장력, 인물묘사의 생동감, 작가의 주제의식 등 여러 측면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G사 9)

상술한 인터뷰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아동 청소년문학 출판사들은 작품 선정 시 문학으로서의 작품성,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주제 전달 방식, 작가의 인지도와 수상작 여부, 국내 정서와의 부합도, 판매가능성을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었다. 주제 면에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아냄으로써 성장기 독자들의 내면세계를 성장시키고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품이 선호되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상품성과 판매성 역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실제 일부 관계자는 작품성과 판매성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내부 편집팀과 마케팅팀 간에 조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출판사에서는 아동 청소년문학을 출판할 때 ‘작품 자체로서의 질적 가치(문학성, 독창성, 작품의 소재와 주제, 작가의 필력 등)’와 ‘상품으로서의 판매 가치(판매 가능성, 시장 독자 수요와의 긴밀도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품을 선별하고, 내부 여러 구성원들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실제 출간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 번역서의 선정 기준 역시 국내 창작서와 거의 유사했다. 다만 외국 도서의 경우 해당 출발어 문화권에서의 작품과 작가의 위치를 근거리에서 체감할 수 없으므로 문학상 수상 여부나 언론 및 기관에서의 추천여부, 현지에서의 반응, 작가의 인지도,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 판권 판매 여부가 작품 가치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명작가의 작품이나 수상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정서와의 부합 여부가 우선시된다고 하

였다. 문화적 이질감이 너무 심하거나 한국 현실과의 괴리가 크면 독자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어려우므로 선정과정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 4.3. 아동·청소년도서 출간에서의 교육적 측면 고려 여부

세 번째 ‘아동·청소년도서 출간에서의 교육적 측면 고려 여부’는 출판사가 성장기에 속하는 아동·청소년 독자들에게 ‘교육적’ 측면의 도움을 주기 위해 출간도서 선정이나 제작 단계에서 특별히 중시하는 방침이 있는지 묻고자 했다.

〈표 8〉 (3) 아동·청소년문학도서 출간에서의 교육적 측면 고려 여부에 관한 인터뷰 내용

(3)항목 관련 주요 내용 발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에는 학습과 연관된 것만 잘 팔리고 선정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사상을 계발시킬 수 있는 책, 양질의 그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초적인 것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어른이 아이들의 바른 인성과 생각을 키워주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A사 1)</li> <li>■ “어린이, 청소년독자들이 이 시기에 문학을 접하며 자기 자신이나 또래, 나아가 세상을 배워간다는 점이 독서를 통한 직접적 교육이죠. 세상이나 자아에 대해 앎을 확장하거나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 혹은 성장을 독려하고 내면의 힘을 북돋는 문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G사 9)</li> <li>■ “아동·청소년문학은 우선 교육이 전제가 된다고 봐요. 아이들이 읽을 책이고, 청소년이 읽을 책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읽는 책들처럼 장르가 프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리 검열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적인 의도에서의 내용편집과 문학적 자율성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그 사이를 어떻게 뚫고 가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부분을 전해줘야 하는 건 분명해요.” (J사 13)</li> <li>■ “성장기 아이들에게 유해한 소재나 배경은 기획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습과 연계된 기획이나 원고라면 주로 교과서의 학습 과정을 참고합니다.” (B사 2)</li> <li>■ “요즘은 문학성이 있는 순수 청소년문학 작품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li> </ul>

판사 입장에서도 그런 경향을 반전시킬 묘수가 없어서 학습화에 대한 편중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문학작품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학습서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동 청소년도서 같은 경우는 외부변수에 많이 좌우되다보니 콘텐츠만 가지고는 결정을 하기 힘든 점이 있어요. 문학성 있는 작품을 알아도 못 내는 경우가 많고 학습 환경과 점점 밀접해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한국에서는 ‘교육적’이라는 표현이 ‘학습적’이라는 단어로 쪼그라들어 있어서 문학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D사 5)

이처럼 ‘교육성’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볼 때 출판사들은 우선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다시 말해 ‘바른 인성과 생각을 키워주고 도덕성, 마음, 배려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책’,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읽으면서 삶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책’, ‘세상이나 자아에 대한 앎을 확장하거나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책’, ‘성장을 독려하고 내면의 힘을 북돋는 책’ 등 내용 자체에서 교육적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배어나는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성장기 아동, 청소년에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소재, 유해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최대한 걸러내고,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휘나 문장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병행되고 있었다.

또 한 가지 국내 아동 청소년도서 시장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아동 청소년 대상 도서들이 교과과정이나 입시제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학습적’ 요소가 부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동문학의 현황을 다룬 한국일보 기획기사(2012)에서도 지난 10년간 아동 청소년문학이 급성장하긴 했으나 학부모, 출판사 위주의 계몽적인 메시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학습연계 기획도서가 인기를 끌면서 아동 청소년문학에도 그 영향이 파급되어 실제 역사적 배경을 무대로 한 소설이나 수학, 인문학 등 학습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창작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sup>7)</sup> 일각에서는 ‘교육적’이라는 표현이 ‘학습적’이라는 표현과 동일시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각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에는 학습과 연관된 것만 잘 팔리고 선정되는 점이 아쉽다’거나 ‘학습화로 전환되는 시장 분위기를 반

7) 이윤주, 한국일보, 2012년 3월 기획기사 「아동청소년문학 오늘을 말한다」 참고

전시킬 묘수가 없으니 출판사 자체적으로도 학습화에 대한 편중이 강해지고 있다’는 일부 관계자들의 설명이 그와 관련한 출판사의 고민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도서 판매를 위해서는 시장 독자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교육적 요구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 출판사들이 교과 학습과정이나 주제, 입시경향 등을 참고하여 책에 대한 독자들의 교육적 기대에 적정 수준 부응하려 함을 알 수 있었다.

#### 4.4.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재맥락화<sup>8)</sup> 전략

네 번째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재맥락화 전략’은 출판사들이 실제 외국 텍스트 번역, 출간 시 아동 청소년도서의 교육적 기능을 염두에 둔 재맥락화 현상들이 빈번히 일어나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맥락화 전략들을 채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자 설계된 항목이다. 인터뷰 결과 출판사마다 편집의 원칙과 노선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아동 청소년도서를 기획, 편집할 때는 교육적 효과를 위해 성인도서에 비해 편집자가 좀 더 많은 조정을 가하고 친절해지는 경향이 있음에 동감하고 있었다.

〈표 9〉 (4)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재맥락화 전략에 관한 인터뷰 내용

(4)항목 관련 주요 내용 발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적인 부분은 거의 지울 수밖에 없어요. 아동문학을 편집할 때는 사전 검열 단계가 존재해요. 예전에 프랑스 작품을 번역할 때였는데, 그 안에 선생님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서 출판사에서 처음에 번역을 망설였어요. 아동문학은 아이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결국은 번역이 되긴 했는데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켰죠[...]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요소들은 실질적으로 책을 편집할 때도 걸러내고 있어요.” (J사 13)</li> <li>■ “노래가사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전체적인 느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기도 해요. 그리고 언어유희가 가장 어려워</li> </ul>

8) 여기서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는 ‘특정 텍스트가 상이한 시스템을 지닌 새로운 맥락 내로 채택되어 해당 맥락의 가치와 요구에 맞추어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강경이 2015).

요. 역자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욕설은 청소년책의 경우 요즘은 많이 열려 있는 편이기는 해요. 왕따나 자살, 성폭력 같은 파격적인 주제도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보수적이에요. 학부모 독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욕설이 나오면 편집자 선에서 조절해요[...] 아이들이 보는 책이다 보니 편집자로서 좀 더 친절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편집자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일반 성인도서보다 더 친절하게 교정하는 편이죠[...] 순서를 조정한다거나 너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부분을 보다 스피디하게 간략하게 줄여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작가의 의도나 스타일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윤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동독자를 염두에 두고 편집하다 보니 과하게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B사 2)

- “실질적으로 외서 번역과정에서 심한 장면들은 의도적으로 빼고, 정서적으로 안 맞거나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가야 하는 책이니까요[...] 이질적인 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는 외국의 것을 배워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 지리하게 늘어질 경우 손보게 됩니다.”(C사 4) /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자를 우선 고려해서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강하거나 선정성 수위가 높을 경우는 걸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판단해서 이국적인 면을 살려야 할 경우는 살려야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언어유희도 한국적으로 재구성하려고 하고요.” (C사 3)

상기 내용들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원작에 충실하고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출판사도 있는 한편 대다수 아동 청소년문학 출판사의 경우 원작의 기본 맥락이나 작가의 의도와 스타일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편집자가 미리 여과하고 손질하게 된다고 동조했다. 이처럼 번역 편집단계에서 적극적인 개입과 윤문이 가해지는 것은 아무래도 아동 청소년독자들에 대한 문학작품의 ‘교육적’ 역할을 염두에 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출판관계자들의 답변에 의하면 이데올로기 차이가 심하거나 출발어 문화권의 이데올로기 색채가 유난히 강하게 드러난 작품들은 선정단계에서 우선 배제되지만 그럼에도 텍스트 상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문제시될 수 있는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적절하게 손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부분, 욕설, 장애인 비하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혼선을 준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 편집자 선에서 수위조절을 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재맥락화가 흔히 일어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가독성 측면에서도 국내 독자들이 잘 모르는 이질적인 부분을 생략하거나 묘사와 서술이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는 부분을 간략화하게 조정하거나 필요할 경우 내러티브 순서를 인과관계나 시간순서에 따라 단순하게 조정하는 작업들도 아동 청소년도서 편집과정에서는 다반사임이 확인된다. 그밖에 노래가사, 언어유희 등 문화 간 간극이 선명한 언어 장치들에 대해서는 텍스트 내용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원작이 의도한 느낌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한국식으로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국내 관련 제도 규정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외국 아동 청소년문학의 국내 번역 출판과정에 개입하는 외부적 주체들의 ‘교육적 기대규범’을 가시적으로 도출하여 ‘국가적, 범사회적 정체성 이입’, ‘인지적 영역의 확대’, ‘정의적 영역의 함양’, ‘가독성 추구’, ‘예술적 심미성 고려’ 다섯 가지로 유형화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교육적 기대규범’이 실제 출판사의 번역 출판과정에도 유효하게 작동되는지를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문학 출판사들이 국내의 제도권 안에서 사회 전반의 이데올로기나 인식,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아동 청소년문학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교육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교육적 기대규범’도 실제 문학작품을 선정, 기획, 번역/편집하는 과정 전반에 적용되고 있음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요컨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의식과 책의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상업적 목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입장인 출판사들은 외국 아동 청소년문학 번역 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국내의 교육적 기대규범을 반영, 적용하고 있었다.

첫째, 작품 선정 시 ‘상품으로서의 판매 가치’외에 문학으로의 작품성, 작가의 인지도 및 필력, 주제의식, 독창성도 중요하게 작용하며, 외국 작품의 경우 수상작 여부, 현지 매스컴의 평가, 국내 정서와의 부합도 등도 부가적으로 고려

한다. 둘째, 작품의 주제 면에서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 아동 청소년독자들의 내적 성장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주로 선정하는 편이다. 셋째, 유해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 검열 및 강도 조절 과정을 거친다.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소들을 걸러 내거나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내용,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학습 노선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에 대해 조정을 가하기도 한다.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출판사 관계자들은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 독자로 하므로 번역, 편집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넷째, 가독성 제고와 문학적 효과 재현을 위해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질적 요소 생략, 장황한 묘사 및 서술 간략화, 내러티브 구성 단순화, 언어유희 등 문학적 장치의 재구성 등의 전략을 취한다.

본고는 ‘교육적 기대규범’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아동 청소년문학의 교육적 역할에 대해 막연하게 지켜왔던 기대와 요구를 정리하여 도출하고, 실제 출판번역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로 그 타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에도 아동 청소년문학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산재적으로 많이 있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면적인 접근법을 통해 도서와 관련된 제도적 틀(심의/규제), 아동 청소년문학 전문가들의 지배담론, 국내 권장도서 선정기관의 심사 기준, 출판사의 기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교육적 기대규범’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만 본고가 주로 국내에서의 아동 청소년문학 번역을 둘러싼 텍스트 외부의 교육적 기대규범 규명과 번역출판의 의사결정 주체인 출판사의 증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타당성이나 신뢰성 보완을 위해서는 그러한 교육적 동기에서 비롯된 텍스트 내부 현상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강경이 (2015) 『중국어권 아동 청소년소설 한국어 출판번역에서의 재맥락화 양상 - ‘교육적 기대규범’ 측면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문희, 이혜상 (2008) 『아동문학교육 개정판』, 서울: 학지사.
- 강향옥 (2001) 『초등학교 저학년 권장도서 선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봉만 (2011) 「청소년 문학의 특성에 대한 연구-단순화와 대체를 중심으로」,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35집: 1-33.
- 곽춘옥 (2011) 「초등 상업용 문학도서의 현황과 문제점」, 『독서연구』 26: 171-202.
- 김수경 (1995) 『어린이도서선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내, 현은자 (2003) 「권장도서의 선정 현황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4(2): 17-53.
- 김은하 (2005) 「권장 도서목록을 버려야 하는 이유」, 『창비 어린이』 10: 49-67.
- 박미경 (1998) 『아동문학의 교육적 기능 연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 (2012) 「『홍당무』 번역의 과거와 현재 - 아동본 번역의 쟁점들」, 『번역학연구』 13(2): 65-88.
- 박소영 (2015) 「스페인 프랑코 독재 체제 하의 아동문학 번역과 검열」, 『동화와번역』 29: 41-61.
- 선주원 (2008) 『청소년 문학 교육론』, 서울: 역락.
- 성초림 (2013) 「문학권력과 번역 - 권장도서목록이 아동문학 출판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5): 143-167.
- 신지선 (2009) 「이중 독자층이 내재한 아동문학의 번역양상 고찰 -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0(3): 141-159.
- 신헌제, 권혁준, 곽춘옥 (2009) 『아동문학의 이해』, 서울: 박이정.
- 성경수 (2010) 『청소년문학과 문학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종찬 (2007) 「문학교육을 위한 텍스트의 제문제: 아동문학 텍스트와 초등 문학 교육」, 『문학교육학』 24: 63-86.
- 이봉범 (2005) 「반공주의와 검열 그리고 문학」, 『상허학보』 15: 49-95.
- 이성은 (2003) 『아동문학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연옥 (2006) 「아동 및 청소년도서 선정도구 평가에 관한 연구 - 권장도서목록

- 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 1-26.
- 이인규 (2012) 「아동문학번역에 나타난 번역의 자율성 - <크리스마스 캐럴>의 경우」, 『번역학연구』 13(2): 185-208.
- 이주희 (2012) 『고등학교 권장도서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일준 옮김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서울: 새물결. (Pierre Bourdieu (1982) *Ce que parler veut dire: l'économie des échanges linguistiques*, Paris: Fayard).
- 한만수 (2012) 『잠시 검열이 있겠습니다 - 먹칠과 가위질 100년의 사회사』, 서울: 개마고원.
- 허미은 (2002) 『동화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제7차 교육과정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기순 (2000) 『아동문학의 교육적 기능 분석(초등학교 일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Philadelphia: J. Benjamins.
- O'Sullivan, Emer (2003) 'Narratology meets Translation studies, or The voice of the Translator in Children's Literature'. *Meta*. 48(1-2): 197-207.
- Oittinen, Riitta (2006) 'No innocent act—On the Ethics of Translating for children'. in Jan Van Coillie, Walter P. Verschueren (ed.)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challenges and strategies*. Manchester: St.Jerome, 35-45.
- Shavit, Zohar (2006)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Gillian Lathey (ed.)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A Reader*,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5-24.
- Frank, Helen T. (2007) *Cultural Encounters in Translated Children's Literature- Image of Australia in French Translation*, Manchester: St. Jerome.

<사전>

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교육심리학용어사전』, 학지사.

한국심리학회 (2014) 『심리학용어사전』,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신문기사>

이윤주 (2012. 3. 26) 「아동청소년문학 오늘을 말한다 - (상) ‘완득이’ 대성공 4  
년후」, 『한국일보』

이윤주 (2012. 3. 27) 「아동청소년문학 오늘을 말한다 - (중) 해외는 장르화 추  
세」, 『한국일보』

[Abstract]

### **Educational Expectancy Norms in the Publication Translation of Foreign Children and Adolescent Literature in Korea**

Kang, Kyoung-Yi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ich educational expectancy norms influence the publication practice in Korea, when book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translated. To this end, the concept of 'expectancy norms' by Chesterman was adopted to specify the 'educational expectancy norms' influencing the transl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 literature. Also, the educational expectancy norms, widely-shared in Korea, were presen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liberation and censorship system; the public discourse of specialists; and the selection criteria of book recommending institutes.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educational expectancy norms' that external subjects have, who intervene the translation publication proc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 literature,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a) importing a national and social identity; b) expanding cognitive area; c) developing affective area; d) securing readability; and e) considering aesthetic impression.

Also,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related personnel to find out whether these 'educational expectancy norms' actually influenced the translation publication process at the sites of publisher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o some extent, that the decisions made by most Korean publishers of children and adolescent books were not very different from the social ideologies, awareness, conventional wisdoms of the Korean society; and that the five 'educational expectancy norms', which represent the grown-ups' educational views regarding children and adolescent literature, influenced the overall, selecting, planning, translating, and editing processes of literary works.

▶ Key Words: children and adolescent literature translation, educational expectancy norms, Korean publishers

강경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BK21 플러스 특임교수

jjongli1011@ewha.ac.kr

관심분야: 아동문학번역, 번역교육, 이데올로기, 담화분석, 출판번역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17일